jthink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20120402 vol.81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면(面)지역 '1,000원 목욕탕' 조성

Contents

1. 농촌인구 고령화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
2. 한국인의 목욕문화와 전라북도 농촌지역 목욕탕 실태
3. 주민의 자랑, 무주군의 면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4. 면(面)지역 '1,000원 목욕탕' 조성 및 운영 방안

Issue Briefing

연구진 장세길 부연구위원 · 문화관광팀
이중섭 부연구위원 · 사회복지팀
신진옥 연구원 · 문화관광팀
김연일 연구원 · 지역개발팀

전북발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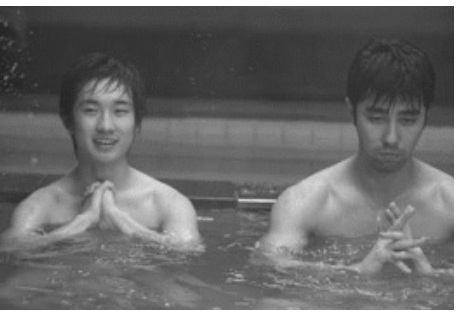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jthink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2년 4월 2일 vol.81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밭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면(面)지역 '1,000원 목욕탕' 조성



1. 농촌인구 고령화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 ····· 3

2. 한국인의 목욕문화와 전라북도 농촌지역 목욕탕 실태
1) 목욕의 효과와 한국인의 목욕문화 ····· 5
2) 농촌지역 목욕탕의 필요성과 전라북도 실태 ····· 6

3. 주민의 자랑, 무주군의 면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1) 목욕탕 운영 현황 ····· 10
2) 목욕탕 운영 성과와 과제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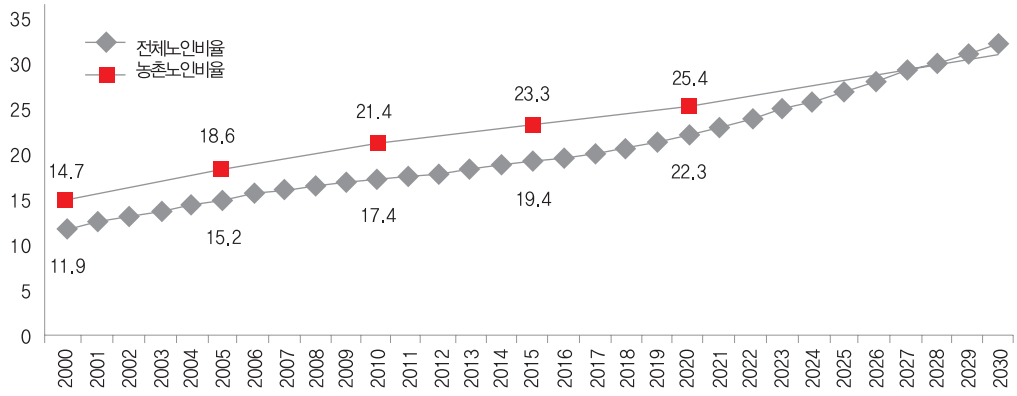
4. 면(面)지역 '1,000원 목욕탕' 조성 및 운영 방안
1) 삶의 질 정책의 상징사업으로 1개 면(面)에 1개 목욕탕 건립 ····· 12
2) 목욕탕 운영예산(안) 및 확보방안 ····· 14

1. 농촌인구 고령화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

○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2010년 현재 65세 이상 농촌노인인구는 21.4%로 전체 평균 노인인구의 비율인 17.4%보다도 약 4% 높음

- 우리나라의 인구 노령화는 갈수록 빨라져 오는 2018년은 노인인구가 전체의 14.3%를 기록하면서 고령사회(aged society),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다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각각 18년과 8년으로 선진국에 비해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

〈그림-1〉 전체노인인구 및 농촌노인인구 추계



○ 전라북도의 경우 2010년 현재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이 14개 시·군 중 10개 지역(정읍, 남원, 김제, 부안, 무주, 고창, 진안, 장수, 순창, 임실)으로 매우 심각한 고령사회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 농촌지역의 고령화는 농촌노인의 고독감과 소외감을 가중시켜 농촌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추동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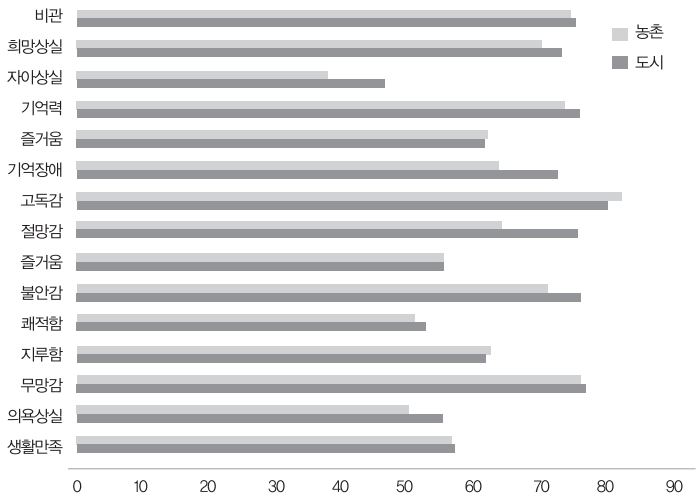
○ 2009년 노인실태조사 분석결과, 농촌노인의 우울감 정도는 도시노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평균 60%를 상회하고 있어 농촌노인의 사회·정서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함

- 2009년 노인실태조사결과, 생활만족도는 농촌노인이 56.7%로 도시노인 57.1%보다 다소 낮았고, 농촌노인의 50%이상이 희망에 대한 상실감, 생활의 지루함, 외로움과 고독감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우울감 측정에서 10점 이상의 높은 우울감을 경험한 노인비율은 농촌노인이 18.2%로 도시노인 16.5%보다 1.7%p 높게 나타남

〈도시-농촌노인의 우울감 정도〉

	예	
	도시	농촌
생활에 만족함	57.1	56.7
요즈음 활동량/의욕이 많이 떨어짐	55.2	50.3
자신이 헛되이 살고 있다고 느낌	76.8	76.0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짐	62.0	62.5
평소에 기분 상쾌한 편임	52.9	50.9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아 불안함	76.2	70.7
마음이 즐거운 편임	55.5	55.5
절망이라는 느낌이 자주 듬	75.6	64.0
바깥에 나가기 싫고 집에만 있고 싶음	80.2	82.3
다른 노인보다 기억력이 나쁘다고 느낌	72.7	63.5
살아있는 것이 즐겁게 생각됨	61.7	61.9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낌	76.0	73.5
기력이 좋은 편임	46.5	37.8
자신의 처지가 희망이 없다고 느낌	73.2	70.1
다른사람의 처지보다 못하다고 생각함	75.5	74.5



〈표-1〉 도시-농촌노인의 우울감 정도

	5점 미만	5-10점 미만	10점 이상	전체
도시	54.3%	29.2%	16.5%	9,538
농촌	51.5%	30.4%	18.2%	5,432
전체	7,971	4,437	2,562	14,970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09.

- 인구유출로 농촌이 황폐화되면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은 현격하게 낮아짐. 특히 농촌노인의 삶의 질이 도시노인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 이로 인해 농촌노인의 복지욕구는 소득보장이나 일자리 지원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와 함께 건강증진, 간병, 일상생활지원과 같은 생활복지의 욕구가 높게 나타남
  - 전라북도 농촌노인이 원하는 복지욕구는 소득보장(63.8%)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건강증진(12.2%)임
  - 전라북도 농촌노인의 복지욕구 2순위에는 건강증진이 25.0%, 간병 21.3%, 일상생활지원 12.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여전히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음
- 농촌주민의 생활복지가 강화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농촌노인의 건강증진정책을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있음

〈표-2〉 전라북도 도시-농촌노인의 원하는 복지욕구(단위: %, 명)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소득보장	일자리 지원	일상적인 가사지원	건강 증진 서비스	간병요양 보호서비스	평생교육 프로그램	문화 · 여가 활동 지원	세대간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교통 및 주거환경 조성	전체 (명)
도시	1순위	62.9	13.9	6.1	6.7	4.5	1.3	3.1	.2	1.1	445
	2순위	9.7	22.6	17.5	9.4	16.0	1.4	12.5	3.5	7.3	424
농촌	1순위	63.8	10.6	5.1	12.2	4.4	.5	.9	.2	2.4	574
	2순위	9.8	10.5	12.3	25.0	21.3	2.9	7.0	.2	11.1	560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09.

2. 한국인의 목욕문화와 전라북도 농촌지역 목욕탕 실태

1) 목욕의 효과와 한국인의 목욕문화

가) 목욕의 일반적 효과: 청결행위에서 건강행위로

- 머리 감을 목(沐)자와 몸 씻을 욕(浴)자로 이뤄진 목욕은 인간의 주 생활행위 중 하나
- 일반적으로 목욕은 신체의 청결과 미용 유지, 휴식 등을 위한 목적 이외에 상징적 의미로 의례(ritual)적 기능을 포함. 삶의 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최근에는 건강증진과 피로회복을 위한 휴양, 요양 및 치료행위로 목욕에 주목
  - 목욕과 건강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최근에 두드러짐: 목욕과 100세 장수의 관계, 특정 질환이나 피로회복에 대한 목욕의 효과, 목욕과 소아 증상과의 관련성, 목욕의 정신적 효과 등
- 여러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현대사회에서 목욕은 청결행위라는 본질적 목적에서 점차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행위로 목적과 기능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한편,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선호하는 목욕방법과 목욕의 효과에 대한 이해가 다름
- 건강이 좋지 않거나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통목욕(뜨거운 탕 속에 몸을 일정시간 담구는 행위)을 선호하고, 건강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샤워 선호.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목욕의 신체적 효과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건강이 괜찮은 사람은 목욕의 정신적 효과와 청결 효과에 긍정적 태도 보임(최희정 · 이은옥 2002 참조)
- 누구보다 건강을 염려하고, 또한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노인(특히 농촌지역)에게 통목욕은 무엇보다 필요한 신체적 건강행위라는 사실을 보여줌

나) 한국인의 목욕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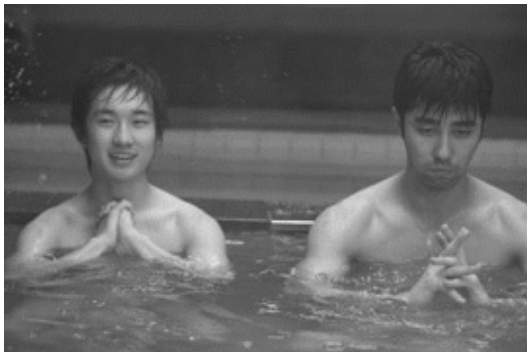
- 우리나라에 공중목욕탕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24년 평양에서임
  - 부(府)에서 직접 운영, 관리인을 따로 임명. 서울에서는 1925년에 처음 등장(백수철 2005 참조)
- 해방 이후 위생관념이 생겨나면서 목욕탕 이용자가 늘어났고, 자연스레 민간이 운영하는 공중목욕탕이

〈표-3〉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65세 이상 노인)

구분	전체 노인	읍 · 면 지역 노인
경제적 어려움	38.4	34.7
직업이 없음	2.4	1.6
소일거리 없음	5.3	2.6
건강문제	43.6	51.5
외로움, 소외감	3.7	4.0
가족의 푸대접	0.2	0.2
경로의식 약화	1.7	1.1
일상생활 도움서비스 부족	0.7	0.7
노인복지시설의 부족	3.0	2.4
기타	0.9	1.2

등장하기 시작. 서양인이 많아지면서 목욕탕을 갖춘 여관 또한 등장(뜨거운 물을 뜻하는 목욕탕 표시를 숙박시설 간판에 함께 넣는 것이 여기에서 유래)

- 1970년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주택 안에 욕실을 갖추기 시작. 1980년대 이후에는 욕실 개념이 가족 공용공간에서 개인적 공간으로, 그리고 단순한 생리위생적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건강관리 공간으로 전환
- 한국인의 목욕문화는 욕조 안과 밖에서 이뤄지지만, 서양인의 목욕문화는 거품이 있는 욕조 안에서 모든 목욕행위를 마무리함
  - 한국인의 목욕은 비누질하기→헹구기→욕조에 몸 담그기→때 밀기→비누질하기→헹구기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침. 특히 욕조에 뜨거운 물을 채워 목까지 잠기게 하는 '통목욕' 선호. 한국에서 목욕은 청결이라는 위생적 측면 외에 보온, 신체적 · 정신적 피로 회복이라는 목적을 포괄하기 때문
  - 서양식 목욕은 중세시대 주거형태에서 기인한 것으로 침실 안에 욕조와 대야를 놓고 목욕하는 방식에서 출발. 허리가 잠길 정도로 욕조에 물을 채워서 욕조 안에서 몸을 씻고 물을 뺀 후 다시 욕조 안에서 샤워로 헹구고 몸을 닦음. 현대에 와서는 급수설비를 갖추어지면서 샤워방식이 보편화
- 개인생활 중심인 서양에서는 주택욕실에서의 목욕문화가 대부분인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개인 · 가족을 위한 욕실이 주택에 있음에도 공중목욕탕을 이용
- 한국의 공중목욕탕이 단순히 청결행위의 공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줌. 즉, 한국인에게 공중목욕탕은 때를 밀기 위한 공간이면서, 한증이나 마사지, 혈액순환, 건강관리, 휴식 등을 병행하는 종합적인 건강행위 공간
  - 공중목욕탕에서 목욕은 가족 · 이웃 간 공동행위.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등을 밀고, 동네사람끼리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관계형성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음



〈영화 〈아들〉의 한 장면〉

2) 농촌지역 목욕탕의 필요성과 전라북도 실태

가) 농촌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욕탕의 필요성

- 농촌과 도시지역 노인의 목욕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목욕을 매일 한다는 농촌지역 노인은 33.8%였고 도시지역 노인은 30.6%. 대신 도시지역 노인은 격일로 한다는 응답이 36.1%로 가장 높았음
  - 농촌지역 노인은 대부분 농사일을 하기 때문에 매일 목욕(샤워, 통목욕 포함)을 하는 것으로 보임
- 농촌지역 노인은 목욕장소로 공중목욕탕을 가장 선호하고(61.4%), 도시지역 노인은 집 욕실(63.9%)을 가

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농촌주택에 비해 도시주택이 욕실을 잘 갖추고 있기도 하거니와 농촌지역 노인의 난방비 부담도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음

- 읍·면지역 노인이 겪는 어려움 중에서 경제적 곤란(34.7%)이 건강문제(51.5%)에 이어 2위를 차지(통계청 2008, 고령인구통계자료)

〈표-4〉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노인의 목욕 횟수(조미영 2008: 45)

구분	농촌지역 노인	도시지역 노인	전체
매일	33.8%	30.6%	31.8%
격일로	23.9%	36.1%	31.3%
주 2회	12.7%	9.3%	10.6%
주 1회	22.5	13.9%	17.3%
월 1회	7.0	10.2%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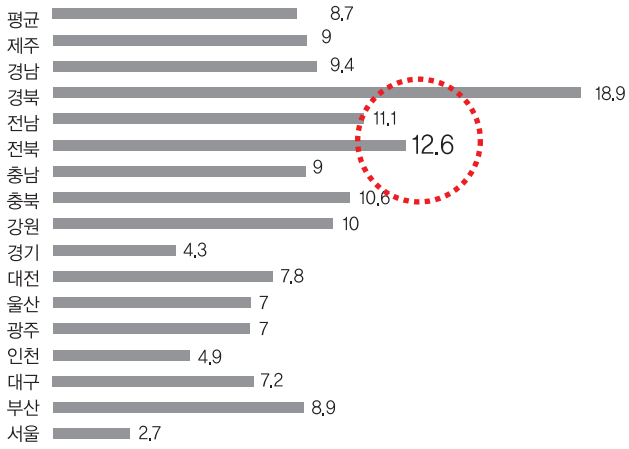
〈표-5〉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노인의 주요 목욕 장소(조미영 2008: 46)

구분	농촌지역 노인	도시지역 노인	전체
대중탕	61.4%	18.5%	35.4%
가정	31.4%	63.9%	52.8%
기타	7.2%	17.6%	11.8%

- 농촌지역은 대부분 기름보일러를 사용해 온수를 만들지만, 도시지역은 도시가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방비가 저렴. 농촌지역 노인이 선호하는 통목욕을 하기에는 난방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부분 공중목욕탕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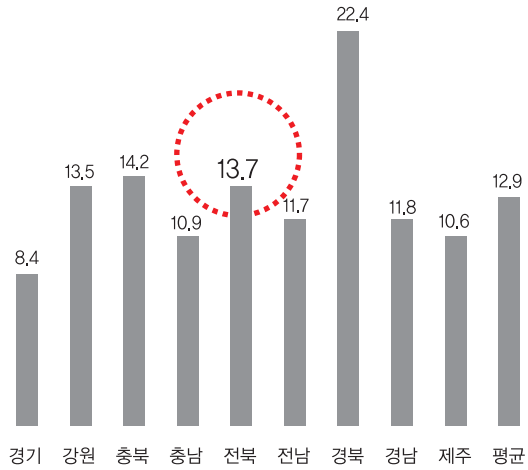
○ 특히, 전라북도의 목욕시설 중 온수미설치 가구는 12.6%로 경북 18.9%다음으로 가장 높고, 농촌지역의 경우도 온수미설치 가구가 13.7%로 추정됨

〈그림-2〉 지역별 목욕시설 온수미설치 비율



전북 노인가구의 12.6% 목욕 및 온수시설 미설치,
전국 평균 노인가구의 목욕 및 온수시설 미설치 비율은 8.7%

〈그림-3〉 농촌역의 목욕시설 온수 미설치 비율



전북 농촌노인가구 중 세면 및 목욕시설의 온수 미설치 비율13.7%
전국 평균 농촌노인가구의 세면 및 목욕시설의 온수 미설치 비율은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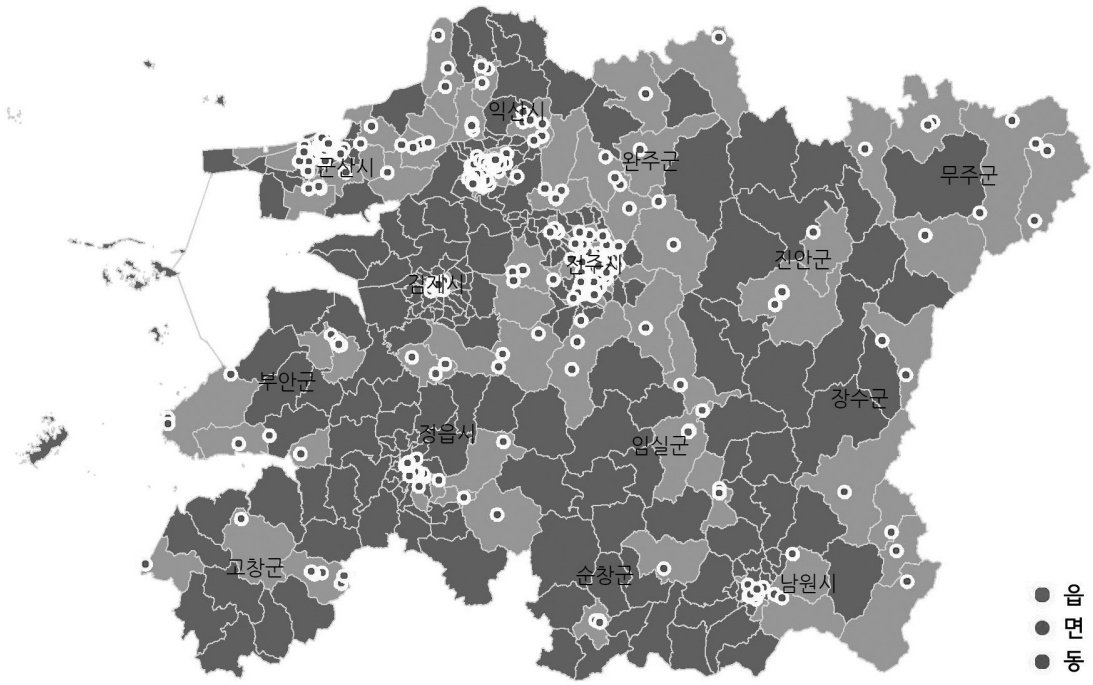
- 노년기가 되면 혈류량이 부족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며, 피부상태가 항상 부드럽지 못할 뿐 아니라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음. 많은 연구자들은 정기적인 목욕이 이러한 노인의 건강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
- 하지만 농촌지역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 농촌주택의 불편함, 공중목욕탕의 접근성 부족, 심지어 동행할 가족이 없어 정기적인 목욕탕 이용이 곤란한 상태에 처해 있음. 정부와 지자체가 농촌주민(특히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지역 공중목욕탕 조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나) 전라북도 농촌지역 목욕탕 현황

- 대한 목욕업 중앙회에 등록된 업소중 전라북도에 있는 공중목욕탕은 320개가 있음. 이 중에서 읍 지역에는 38개, 면 지역에는 71개, 동 지역에는 211개가 있음

〈표-6〉 전라북도 읍면동별 목욕탕 현황(단위:개)

구분	읍	면	동	계	구분	읍	면	동	계
전주시	–	–	75	75	진안군	3	1 (한증막1)	–	4
군산시	3	9 (한증막3,황토방3,찜질방1,일반2)	41	53	무주군	2	7 (찜질방1,콘도목욕1,골프1,면직영4)	–	9
익산시	4	14 (한증막3,황토방2,찜질방1,일반8)	56	74	장수군	–	3 (호텔사우나1,한증막1,일반1)	–	3
정읍시	3	2 (한증막1,일반1)	18	22	임실군	3	3 (일반3)	–	6
남원시	–	6 (콘도목욕2,한증막2,황토방1,일반1)	13	19	순창군	3	2 (면직영1,일반1)	–	5
김제시	–	3 (찜질방2,일반1)	8	11	고창군	7	2 (해수탕1,호텔사우나1)	–	9
완주군	5	12 (한증막5,찜질방4,호텔사우나1,일반2)	–	17	부안군	5	7 (관광위락1,한증막3,찜질방1,일반2)	–	12
합계						38	71	211	320



〈그림-4〉 전라북도 읍면동별 목욕탕 현황

- 면 지역에 목욕탕이 71개이면 적지 않다고 말할 수 있으나, 지역별 목욕탕 유무 현황을 보면 농촌지역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알 수 있음
- 전라북도에는 모두 145개 면(面)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공중목욕탕이 있는 지역은 45개 면에 불과. 즉, 100개 면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 하나도 없다는 것임. 이들 지역의 주민은 집에서 샤워로 해결하거나 공중목욕탕을 이용하려면 읍내까지 버스 또는 자가용으로 이동해야 함
-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그나마 면 지역에 있는 목욕탕이 대부분 한증막 같은 특수목적의 목욕탕이라는 사실. 면 지역에 있는 목욕탕 71개 중에서 한증막이 19개, 황토방이 6개, 찜질방이 10개, 콘도호텔사우나가 7개, 관광위락목욕탕이 2개에 달함. 일반목욕탕과 면사무소 직영 목욕탕은 각각 22개, 5개에 불과함

〈표-7〉 전라북도 면단위 목욕탕 현황

구분	목욕탕 수	면(面)		구분	목욕탕 수	면(面)	
		유	무			유	무
전주시	–	–	–	진안군	1	1	9
군산시	9	6	4	무주군	7	4	1
익산시	14	5	9	장수군	3	2	4
정읍시	2	2	13	임실군	3	2	9
남원시	6	5	10	순창군	2	2	8
김제시	3	2	12	고창군	2	2	11
완주군	12	8	3	부안군	7	4	8
합계					71	45	100

- 목욕탕이 없는 면 지역의 인구는 266,075명(2010년 기준)으로, 이들은 한국이라면 누구라도 누릴 수 있고 누리고 싶어 하는 목욕문화(특히 통목욕)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

〈표-8〉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노인의 희망 서비스(조미영 2008: 57)

구분	인구 수	고령인구 수	고령 인구 비율
145개 면(面)	424,572명	153,884명	36.24%
목욕탕이 없는 면(面)	266,075명	99,821명	37.52%

- 목욕탕이 있는 면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민간 목욕탕(무주 4개면, 순창 1개면 등 제외)으로 이용요금(평균 5,000원)에 대한 부담(특히 고령노인)이 적지 않음. 게다가 목욕탕이 없는 면의 주민은 읍내로 가는 교통요금(버스비 1,000원)을 추가하거나 목욕비와 맞먹는 기름을 소비하면서 읍내로 차를 몰고 가야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음
- 목욕탕이 없는 면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은 37.52%. 건강행위로서 정기적인 목욕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어느 지역보다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목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음

3. 주민의 자랑, 무주군의 면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1) 목욕탕 운영 현황

- 무주군은 2000년 행정자치부 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모두 82억원을 투자해 5개 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진행
- 무주군은 공공건축물 설계권한을 세계적인 건축가인 故 정기용씨에게 모두 위임하고, 공공건축물 31개를 설계, 시공하는 '무주 공공프로젝트'를 추진
- 정기용 건축가는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다니며 면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시설이 있으면 좋을지 물었음. 지역주민은 "가까운 목욕탕이 없어 1년에 몇 차례 버스를 대절해 대전까지 목욕탕을 간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는 주민의견을 반영해 면 주민자치센터에 공중목욕탕을 포함시켰음
- 무주군은 정기용 건축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행정기관 최초로 면사무소 안에 주민을 위한 공중목욕탕을 조성, 현재까지 5개 면 중에서 4개 면(무풍면, 설천면, 안성면, 부남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편의를 위해 공중목욕탕을 직접 운영 중
  - 적상면은 무주읍과 가까워 면사무소 직영목욕탕을 조성하지 않았음

〈건축가 故 정기용〉
자료: 한겨레신문

〈안성면주민자치센터(왼쪽), 안성면 직영 목욕탕 내부(가운데), 설천면 직영 목욕탕 내부(오른쪽)〉

〈설천면 직영 목욕탕 내부(왼쪽), 부남면 직영 목욕탕(가운데), 부남면 직영 목욕탕 내부(오른쪽) 〉

○ 목욕탕은 혹서기인 7~8월(정기휴업)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되, 면의 인구 등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운영. 이용료는 조례에 기반 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린이는 500원~1,000원, 일반인은 1,000원~1,500원 수준

- 안성면은 월~토요일 6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목욕탕의 실절적인 관리를 위해 매표소, 탕내 청소 및 관리 업무 등의 기간제 근로자 3명 고용
- 설천면은 화~토요일 5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기간제 근로자 3명 고용
- 부남면은 인구 1,500명으로 인구수가 적어 일주일 중 목 · 금요일 2일을 운영.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며, 남녀 각 1명씩 총 2명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

구분	시간	운영	남	여	휴일	이용료
안성면	09:00~18:00	월~토	홀수	짝수	일요일	일반 : 1,500원, 65세 이상 : 1,000원
무풍면	11:00~18:00	월~목	화, 수	월, 목	금~일, 공휴일	일반 : 1,500원, 65세 이상 : 1,000원
설천면	10:00~18:00	화~토	홀수	짝수	월,일요일, 공휴일	일반 : 1,500원, 65세 이상 : 1,000원
부남면	13:00~18:00	목, 금	금	목	월~수 토,일요일	일반 : 1,000원, 65세 이상 : 500원

2) 목욕탕 운영 성과와 과제

○ 평균 이용료가 1,000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는 농촌지역 고령노인이 편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 : 노인층 이용률이 전체 대비 60~70% 대

- 안성면(2011.12.19기준) : 전체 이용자 17,616명 중 노인 10,785명(61.2%), 학생 2,149명(12.2%), 중장년 4,682명(26.6%)

○ 고령 노인의 경우 남녀별로 목욕탕 문 여는 날에 맞춰 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1,000원 목욕(부남면의 경우 500원)과 무료 보건진료를 함께 받는 경우가 많음. 즉, 목욕탕 여는 날은 면 주민자치센터로 나들이하는 날 : 고령노인에게 필요한 건강행위로서 정기목욕 실천

- 목욕탕 이용자가 많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목욕탕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이 상당함. 이런 이유에서 무주군은 적자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목욕탕 운영비를 군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음
  - 안성면의 경우 개관 초기에는 500원으로 목욕비를 책정했는데, 인근 진안군(진안군은 읍내와 상전면의 한증막을 제외하고 면 지역에 목욕탕이 없음) 면민들도 단체로 목욕을 오곤 했다고 함. 기름 값이 들더라도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
- 목욕탕 이용자는 대부분 65세 이상의 노인. 이들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 및 목욕탕 관리를 위해 면 주민자치센터별로 2~3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지역주민의 고용창출효과 발생
- 하지만 매년 적지 않은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함. 특히 목욕탕 운영비를 복지예산이 아니라 일반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연일 치솟는 유류비로 갈수록 운영예산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음
  - 안성면은 2010년에 41,681천원이 적자. 설천면은 29,992천원(2011)이 적자
  - 안성면과 설천면은 유류비 절감 위해 태양열, 지열 난방기를 설치 · 사용하고 있으나 태양열은 부족한 일조량으로 많은 효과를 얻기 어려우며 지열은 효율은 좋으나 작동을 위해 별도의 전기시설을 사용해야 함. 이 때문에 비용절감효과는 10%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 특히 지열시스템은 40~50도의 온수를 만들어내지만 노인이용자가 60~70도 온수를 요구해 기름보일러 가동을 병행하고 있음

〈표-9〉 무주군 면사무소 운영 목욕탕 이용자 현황 및 수입내역(단위: 명, 천원)

구분	규모	이용자 수	수입	지출	손익
안성면 (2004~)	168.3㎡ (수용인원 32명)	• 연간 16,812 – 일반인 6,738(40.1%) – 노인층 10,074(59.9%)	• 연간 20,181 – 일반인 10,107 – 65세이상 10,074	• 연간 73,773 – 인건비 17,841 – 유류대 40,260 – 기타 392 (수도 · 전기요금,리모델링 비용 제외)	• 연간 –41,681
설천면 (2005~)	222.7㎡	• 연간 17,324	• 연간 18,911	• 연간 48,903 (수도 · 전기요금,리모델링 비용 제외)	• 연간 –29,992

4. 면(面)지역 '1,000원 목욕탕' 조성 및 운영 방안

1) 삶의 질 정책의 상징사업으로 1개 면(面)에 1개 목욕탕 건립

가) '1,000원 목욕탕' 조성 개요

- 전라북도가 농촌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8개 시 · 군에 '작은 영화관'을 조성하는 것처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복지 차원에서 상징사업으로 추진
- 조성장소: 면 주민자치센터 내를 원칙으로 함
  - 면 주민자치센터 내 건립 시 전기 · 수도료가 저렴하며, 시설관리 용이. 최근에는 보건소에서 진료, 목욕, 건강교실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건소와 목욕탕, 주민자치센터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이 효과적

– 무주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목욕탕 이용자의 상당수가 고령노인이며 이들은 목욕탕을 이용하는 날에 보건진료소에서 무료진료를 받기 때문에 면 주민자치센터에 조성하는 것이 적합

○ 조성규모: 130㎡ 내외(탈의실 · 휴게실 100㎡ 내외, 동시 수용인원 30명 정도)

– 안성면(인구 4,833명)의 경우 168.3㎡로, 명절 때 여성목욕날을 제외하고는 시간대별로 30명을 넘지 않음. 2010년 기준,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오전 10시~11시로 평균 27명

– 일반목욕탕처럼 남탕, 여탕으로 나눠 건립하지 않고 공동 욕탕으로 만들되, 남녀 목욕 날짜를 구분해 지정

○ 조성시설 : 탈의실(30칸), 냉탕, 온탕, 샤워기, 사우나실, 화장실, 보일러실 등

○ 건립방식 : 목욕탕 설계는 전문가에게 의뢰, 모든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

– 무주 안성면과 순창 동계면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운영을 보면 규모는 비슷하나 운영비 차이는 크게 나타남. 안성면은 1일당 13여만원 적자(직원인건비, 전기료 제외)가 났지만, 동계면은 32여만원 적자(직원인건비, 전기료 제외)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음

– 이와 같이 규모는 비슷하나 적자폭은 2.5배가 나는 이유는 목욕탕 이용인원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목욕탕의 열효율이 다르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임. 동계면 관계자에 따르면 아침에 보일러를 틀어 온수를 만들어도 금방 식기 때문에 자주 보일러를 틀어 온수를 보충해야 한다고 함

– 즉,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적 목욕탕 설계를 공통으로 적용함으로써 열효율을 높일 필요 있음

구분	운영일수	운영시간	적자	비고
무주 안성면	연간 250여 일 (7~8월 휴업, 1주일 중 6일 운영)	09:00~18:00	–33,000여천원	–유류비, 유지보수비, 상하수도, 기타비용 포함 –직원인건비, 전기료 제외
순창 동계면	연간 70여 일 (6월~9월 휴업, 1주일 중 2일 운영)	10:00~17:00	–23,000여천원	

나) '1,000원 목욕탕' 운영 개요

○ 목욕요금 : 1,000원~2,000원(요금 책정방식 규정한 조례 제정)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린이(초등학생 이하), 노인(65세 이상): 1,000원

– 일반인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춰 적정 금액 책정: 1,500원~2,000원[1]

○ 운영일수 : 주 5일~6일 영업, 혹서기(7월~8월) 휴업, 남녀 격일 운영

– 구체적 운영일수는 지역특성에 맞춰 설정. 하지만, 운영횟수가 적거나 운영간격이 넓을 경우 목욕을 희망하는 날에 이용할 수 없게 돼 장기적으로 보면 이용자가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됨

– 남자 목욕날, 여자 목욕날을 격일로 운영하되, 평균적으로 여자이용자가 많기 때문에(남자의 경우 자가용을 이용해 읍내로 가는 경우가 있으나 여자이용자(특히 노인)는 이동권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읍내 목욕탕 이용비율이 낮음) 5일을 운영할 경우 여자 3일, 남자 2일 운영이 타당

○ 운영방식 : 시 · 군별 사회복지관 또는 사회적 기업이 시 · 군별 목욕탕 전체 위탁운영

– 현재의 적자폭을 안고 위탁 운영할 단체나 기관은 없음[2]. 그렇다고 일반 목욕탕과 동일한 요금을 책정할 경우 시설 좋은 읍내 목욕탕으로 가기 때문에 면사무소 목욕탕은 이용자 감소로 운영이 곤란해짐. 따라서 '1,000원 목욕탕' 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운영적자를 충당해주는 조건으로 위탁업체를 선정

1) 장수군에서 인터뷰한 한 면민(50대 중반의 남성)은 목욕비가 2,000원만 해도 이용할 거라고 대답. 읍내나 시내로 갈 경우 차 기름값만 해도 이보다 더 든다는 것이 그의 설명. 즉, 면 지역 주민목욕탕의 일반인 요금은 적자폭을 줄이는 취지에서 2,000원으로 책정해도 무방해 보임. 다만, 2,000원이 넘을 경우 시설규모나 이용편의(격일제 운영) 측면에서 경쟁력이 약해짐

2) 정읍시 칠보면 복지회관 목욕탕의 경우 민간인이 위탁금 없이 운영하고 있으나 목욕탕 이용료를 4,000원(일반목욕탕 5,000원으로 1,000원 할인)으로 책정해 놓고 있음

– 위탁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농촌주민 복지를 위한 민간기부의 적극적 활용: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활용, 민간단체의 기부금 모금 등

○ 운영인력: 2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목욕탕별 남녀직원 1명씩)

– 노인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 대비 차원에서 남녀 1명씩 직원 배치: 티켓판매, 청소 및 관리업무

○ 프로그램: 무료진료, 건강교실, 문화프로그램 연계 운영

– 보건소, 주민자치센터를 연계, 농촌고령노인의 문화 · 체육복지로서 건강목욕프로그램 개발, 진행. 다양한 지역에서 주민의 건강검진과 투약, 노인건강체조, ROM운동, 손발톱 소재, 오락 및 관광, 보건교육, 취미활동, 이웃과의 교제 등 통합보건서비스 운영(현사생 2002 참조)

– 전남 신안군 보건소 사례 : 목욕 이용시간을 맞춰서 오전 10시에 주 1회씩 6주간 혈압, 혈당, 체중을 체크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보내기 위한 웃음운동, 장수요가, 스트레칭 운동을 실시,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프로그램 운영

☐ **면 주민자치센터 목욕탕이 생기면 민간 공중목욕탕 이용객이 급감할 것인가?**

○ 무주군 5개 면 중 4개 면 주민자치센터에 목욕탕이 있지만 읍내 목욕탕(2곳)은 여전히 운영. 인구규모가 비슷한 장수는 읍내에 목욕탕이 없으며, 진안 · 순창은 읍내에 각각 3개의 목욕탕 운영

○ 민간 목욕탕의 이용자가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전망

○ 무주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월 1~2회 읍내에서 목욕하던 면지역 주민이 면 주민자치센터에 목욕탕이 생기면서 1주일에 1~2회로 목욕 횟수가 늘어난 것. 즉,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목욕탕이 거주지 근처에 생김으로써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 것임

2) 목욕탕 운영예산(안) 및 확보방안

가) 단계별 조성계획 및 운영예산(안)

○ 군(郡)의 면지역을 우선 추진. 기존 목욕탕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읍내에서 먼 지역부터 건립. 민간 공중목욕탕이 있는 지역은 건립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추진

– 건립비용은 130㎡ 기준, 1개소 당 100,000천원 예상: 지열, 태양열시스템 설치 시 별도비용 필요

○ 연차별로 25개씩 총 100개의 '1,000원 목욕탕' 조성

○ 1개 목욕탕별 연간 이용인원 및 운영예산(예시)[3]

연간 수입		연간 경비	
이용자 수	예상수입	운영일수	운영경비
• 목욕탕별 11,000명 –목욕탕 없는 면(面) 평균 2,800명×연간 이용자 인구의 약 4배(무주사례) = 약 11,000명 –이용자 : 일반인 40%, 65세 이상 노인 60%	• 약 1,500만원 –일반인 4,400명×2,000원=880만원 –노인층 6,600명×1,000원=660만원	• 200일 –7월~8월 휴무 –1주 5일 운영	• 5,500만원 –인건비,유류비 –공공요금 등

3) 무주군 안성면과 설천면의 연간 운영예산을 토대로 연간 지출예산 평균 5,5000만원으로 산정

○ 연차별 건립 및 운영예산 지원(안)

구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건립 개수	연차 계획	25개 (시군별 2개 면, 무주는 1개 면)	25개 (전주, 무주 제외)	25개	25개
	누계	25개	50개	75개	100개
건립예산		25억원 (도비10, 시군비15)	25억원 (도비10, 시군비15)	25억원 (도비10, 시군비15)	25억원 (도비10, 시군비15)
운영예산		13.8억원 (입장료3.8, 도비4, 시군비4, 민간기부2)	27.5억원 (입장료7.5, 도비8, 시군비8, 민간기부4)	41.3억원 (입장료11.3, 도비12, 시군비12, 민간기부6)	55억원 (입장료15, 도비16, 시군비16, 민간기부8)
고용인력		50명	100명	150명	200명
이용자수		연간 누계 275,000명	연간 누계 550,000명	연간 누계 825,000명	연간 누계 1,100,000명

나) 적자 해소 위한 운영비 확보방안

□ 민간의 인적 · 물적 자원 연계 및 활용

○ 민간모금기관인 공동모금회의 농촌복지 기획사업으로 목욕탕 사업을 포함하여 복지인프라가 취약한 농촌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복지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지역의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욕탕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의 기부금과 지역의 자원봉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목욕탕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 혹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농협의 '통 큰 기부'

○ 지역농협의 환원사업비, 영농지도비, 교육비, 생활지도비, 보급선전비, 복지지원비 등을 활용, 지역농협의 주 고객인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요청

○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의 경우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 큰 기부' 요청

– 예) 목욕탕 건립비용 중 일부, 또는 목욕탕별 연간 유류비 중 일부(대략 목욕탕별 1,000만원) 요청.

– 농협이 운영비 지원 시, 전북도와 시 · 군의 연간 운영예산 지원금 25% 감소

참고문헌

백수철 2005, "사회적 평등을 위한 놀이터로서의 공중목욕장 계획안,"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조미영 2008, "도시 · 농촌노인의 생활실태와 욕구에 관한 비교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현사생 2002, "보건진료소의 건강목욕 프로그램 참여 노인과 비참여 노인의 건강행위와 자아존중감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최희정 · 이은옥 2002, "목욕행위와 건강상태와의 관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대한간호학회지』32(4):519–528

jthink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전북발전연구원
560-86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